

의류소비지출과 경기변동: 1970부터 2011년까지

Appare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Business Fluctuations: From 1970 to 2011

전 형 민
LG 패션
Hyung-min Jeon
LG Fashion Corpor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the change of apparel consump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business fluctuation. Business fluctuations were examined using GDP from the National Account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and composite indexes of business indicators issu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The apparel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measured using apparel expenditures from monthly statistics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standard deviation, component ratio, income elastic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Apparel expenditures dropped severely in 1989. But after that, there wasn't significant reduction and Apparel expenditure continuously increased. Also the component ratio of apparel expenditures gradually decreased. But now, reduced pace is shrinking and it seems stagnant aspec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increase marginally. The volatility of the apparel expenditures is higher than that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volatility after 2000 is smaller than the previous.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onent ratio comparison, Expenditures of each clothing items changed by seasonal factor. And the income elasticity of apparel is higher than others. Especially, fabrics, outer and shoes heavily change by the income. 3. Depending on gender, the woman is pessimistic than man about the prospect of apparel expenditures. The woman's volatility is higher than man's. Depending on age, people under the age of 50 are optimistic about the prospect of apparel expenditures. But people over the age of 50 are pessimistic. Also the younger people are, the higher their volatility of apparel expenditures is.

Key words : apparel consumption expenditures, business fluctuations

주제어 : 의류소비지출, 경기변동

Received November 5, 2013; Revised December 15, 2013; Accepted December 31, 2013

I. 연구배경

경기는 주기적으로 호황 혹은 불황의 곡선을 그리며 변화하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변화한다. 경제가 호황이면 소득의 증가로 상품에 대한 관심과 변화 욕구가 증가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매가 늘어나고, 반면 경제가 불황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상품에 대한 관심 및 변화의 욕구가 떨어져서 구매가 줄어든다(이은영, 1997)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IMF의 영향을 받은 1998년에는 불황에 따른 소비 지출의 감소로 수입에 따른 지출이 60.92%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2.59% 떨어진 수치로 196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가장 급격히 떨어진 수치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Hyung-min Jeon
E-mail : hm6308@naver.com

이런 수치이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도의 수입에 따른 지출의 비율은 66.24%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5.32% 상승한 것으로 그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수입에 따른 지출이 64.18%로 전년도 대비 0.28% 상승한 수치로 나타나 불황에 의해 소비가 크게 감소했던 1998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 지출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류소비지출은 평균 가계소비지출의 변동성보다 크다. 과거 연구에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내구재를 구입하기 전에 미래의 경기전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거 의류는 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었으며 내구재의 성격을 띠었지만 소득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소비자의 의류 소비 특성이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의류 사용 주기가 짧아졌고 현재 준내구재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재의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의류소비지출과 경기변동: 1970부터 2011년까지 26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학이나 경제학 또는 식품영양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의류학 분야에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접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민간소비 전체 및 가계단위의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경기변동과 의류소비지출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의류의 성격을 내구재로 구분하여 연구한 것으로 최근의 준내구재로 분류되는 의류의 성격과 차이가 있으며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력의 유무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류소비지출의 추이와 의류 비목별 소득탄력성을 밝히고,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그 변동성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의류 상품 생산자에게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차별적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기변동의 정의

경기변동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및 회폐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규칙성을 보이며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업의 활동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변동이다. 하나의 순환은 다수의 경제활동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팽창과 그 후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후퇴와 위축, 그리고 다음 순환의 팽창국면과 이어지는 회복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순환 주기는 1년 이상의 것부터 12년 주기 등 다양하다(지혜경, 이은영, 1999).

경기변동을 통계적으로 예측 측정하기 위하여 매월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를 이용하여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순환주기는 경기변동과 관련 깊은 경제 시계열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경기전점과 저점을 결정하고 있다. Table 1은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경기전환점과 순환주기를 나타낸 것으로 총 10번의 순환이 있었으며 평균기간 평균 31개월 위축기간 18개월로 팽창기간이 위축기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저점 이후 다시 회복, 상승, 둔화 국면을 거쳐 현재는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우리나라 경기전환점과 순환주기 (단위: 개월)

순환기	정점	저점	팽창기간	위축기간
제 1순환	1971. 4	1972. 3	-	11
제 2순환	1974. 2	1975. 6	23	16
제 3순환	1979. 2	1980. 9	44	19
제 4순환	1989. 2	1995. 9	41	19
제 5순환	1988. 1	1989. 7	28	18
제 6순환	1992. 1	1993. 1	30	12
제 7순환	1996. 3	1998. 8	38	29
제 8순환	2000. 8	2001. 7	24	11
제 9순환	2002. 12	2005. 4	17	28
제10 순환	2008. 1	2009. 2	23	13
평균			31	18

본 연구에서는 종합경기지수와 함께 총체적 경기상태를 나타 내 주는 단일경제지수로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경제성장률 등 경제의 중심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므로 경기변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의류소비지출의 정의

의류소비지출은 의류 및 신발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지출을 의미한다. 의류소비지출은 통계청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의류및신발지출 항목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의류및신발지출은 직물 및 의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지출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비목의 세부비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의류및신발지출 각 비목 세부비목

비목	세부 비목	
직물 및 의의	장복지, 양말지, 한복지, 기타의복, 신사복, 숙미복, 코트, 학생복, 아동복, 필레, 바지, 스커트, 와이셔츠, 남방셔츠, 플라우스, 스웨터, 티셔츠	
	내의	남자 내의, 여자 내의, 어린이 내의, 잠옷
	기타의복	장갑, 스타킹, 기타양말, 모자, 목도리, 넥타이, 장갑, 기타 의류
의복관련서비스	의복관련 세정료, 세탁료, 수선료, 기타서비스	
신발	남자 구두, 여자 구두, 아동복, 운동화, 고무신, 슬리퍼, 기타신발	
신발서비스	신발 관련 세정료, 세탁료, 수선료, 기타 서비스	

3.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변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변화, 소비자의 소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 소비자의 재산 등이 있는데 이 중 경기변동과 관련된 소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소비자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정수진, 1996).

경기가 위축 국면이면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이 둔화되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이

로 인해 채고가 증가한다. 물량이 심화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 감소와 개인소득 감소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소비 역량을 초래한다. 반면에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며 생산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증대시킨다.

의류소비지출이 경기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7.4%로 총소비지출의 48.7%보다 높다. 소비자의 여러 소비 품목 중 의류소비지출은 경기변화에 민감하다.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 또한 높은 편으로 의류는 비교적 안정적인 총소비지출의 변동성을 호트리뜨리는 비록이라고 볼 수 있다(지혜경, 이은영, 1999).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경기의 상태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기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지출은 변화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에 발행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의류소비지출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특히 소비자의 연령, 성별 따라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의류소비지출의 추이와 변동성을 알아본다.

1-1 1인당 의류소비지출의 추이와 가계의 의류소비지출 구성비 변화추이를 알아본다.

1-2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추이와 소득탄력성을 알아본다.

2-1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와 특성을 알아본다.

2-2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소득탄력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소비자 특성별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특성과 변동성을 알아본다.

3-1 성별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과 변동성을 알아본다.

3-2 연령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과 변동성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문제 1-2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동성의 정의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동값의 표준편차를 구해 알아보았다. 이것은 의류소비지출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편차의 크기가 클수록 그 변수의 시간에 걸친 변동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소비지출, 식료품비지출, 의류소비지출 변동값의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변동성 차이 유무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도 이전과 이후의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였다.

연구문제 2-1에서 의류소비지출의 각 비목별 구성비는 가계동향조사 항목 중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소비지출 값을 총소비비에 대한 구성비(%)로 계산해 나타냈다. 또한 분기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구성비 평균을 구하였다.

연구문제 2-2에서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 변화했을 때 품목별 수요량이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소득은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한 항목으로 소득에 의한 지출의 탄력성은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과 연관성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품목별 소비지출의 값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n_p = \frac{\Delta e/e}{\Delta y/y} = \frac{\Delta e \cdot y}{\Delta y \cdot e}$$

n_p 는 품목별 소득 탄력성, Δe 는 품목별 지출의 변화량, Δy 는 소득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위 수식에서 나타내는 비와 같이 소득탄력성은 변화율과 변화율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탄력성의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지출증가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광현, 2011).

연구문제3에서 성별, 연령별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 전망의 특성과 변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지수와 각 소비자별 의류비지출전망 지수의 흐름을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렸다. 또한 경기지수 변동값과 각 소비자별 의류소비지출전망의 변동값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의류소비지출의 추이와 변동성

(1) 의류소비지출과 의류소비지출 구성비 변화추이

Figure1은 1970년 1사분기부터 2011년 4사분기의 명목GDP,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의 분기별 변화추이이다. GDP, 총소비지출, 의류및신발소비지출 모두 분기마다 기복이 나타나지만 1988년도와 2008년도의 불황기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여준다. 1997년 3사분기부터 극심한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GDP, 총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이 크게

① 경기변동지표

경기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단일경제지수로 국내총생산(GDP)과 경기종합지수를 사용하였다. GDP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계정의 명목GDP로 1970년1/4분기부터 2011년4/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종합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항목으로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8차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하여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② 의류소비지출 자료

의류소비지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전국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의류신발소비지출을 분기 단위로 전환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1970년1/4분기부터 2011년4/4분기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및 의류신발소비지출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의류신발소비지출을 가구 구성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총소비지출은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경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류신발지출은 격월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리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의류비지출전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행하는 소비자동향조사 중 의류비지출전망CSI 값을 활용하여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값은 소비자의 지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것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③ 소득탄력성 산출 자료

소득탄력성 산출에 필요한 소득 및 수요량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월평균 가계수지 중 소득, 품목별 소비지출, 의류신발의 비목별 소비지출을 연 단위로 전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문제 1-1에서 의류소비지출 추이는 명목 GDP와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분기단위로 살펴보았으며, 분기별 특성을 보기위해 2003년 1/4부터 2011년 4/4까지 9년간 의류소비지출의 분기별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로 명목 GDP와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자료를 회귀분석하고 회귀식을 구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 의류소비지출 추이를 분석하였다. 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비는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 소비지출 값을 구성비(%)로 계산해 나타냈으며 의류소비지출 구성비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1070년부터 2011년까지 의류비지출/총소비지출 값을 회귀분석하여 회귀식을 구하였다.

의류소비지출과 경기변동: 1970년부터 2011년까지 28

감소하였고 특히 의류신발지출은 1997년 상반기 월평균 27,385원에서 1998년 상반기 월평균 20,268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의류신발소비지출이 여러 소비지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DP와 총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지만 의류신발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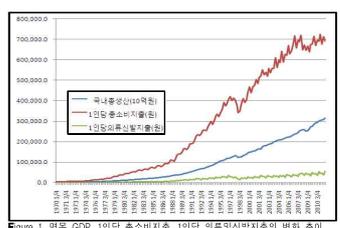


Figure 1. 명목 GDP, 1인당 총소비지출, 1인당 의류및신발지출의 변화 추이

Figure2는 2003년 1/4분기부터 2011년 4/4분기까지 가구당 의류소비지출의 분기별 평균을 구해 분기별 특성을 본 것이다. 의류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분기는 4사분기이며 가장 낮은 분기는 3사분기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3사분기인 여름철에 의류의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착용 품목의 수도 겨울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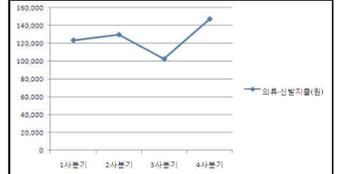


Figure 2. 가구당 의류소비지출의 분기별 평균

Table3은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국내총생산, 1인당 총소비지출, 1인당 의류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구한 것이다. GDP, 총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 각각의 다항식은 99%, 97%, 96%의 타당성 가진다. Table4는 회귀식을 바탕으로 2012년, 2022년, 2032년, 2042년의 GDP, 일인당총소비지출, 1인당 의류소비지출의 값을 예측한 것이다. 2012년 GDP는 작년 대비 약 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간 평균 1.48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총소비지출은 작년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간 평균 1.36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의류소비지출은 작년 대비 약 0.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간 평균 1.31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3. GDP, 총소비지출, 총소비지출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R ²
국내총생산	$y=941.1x^2-10658x+31546$.997
1인당 총소비지출	$y=206.3x^2+4803x-28638$.978
1인당 의류소비지출	$y=8.78x^2+4652x-1879$.983

Table 4. GDP, 총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의 예측

	2012년	2022년	2032년	2042년
국내총생산(십억원)	1,304,746	2,099,622	3,082,718	4,254,034
1인당 총소비지출(원)	564,601	811,949	1,100,557	1,430,425
1인당 의류소비지출(원)	34,313	47,373	62,184	78,748

Figure 3 은 1971년부터 2011년 까지 5년 간격으로 가계 지출의 품목별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품목의 경우 1971년에 식료품, 의류및신발, 기타소비지출의 구성비는 각각 46.6%, 11.5%, 10.6%를 차지하였다. 반면 2011년에는 식료품, 교육,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가 각각 26.3%, 11.9%, 17.6%, 17.2%를 차지하였다. 지난 40년간 식료품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의류소비지출의 구성비는 식료품과 같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평균 5.3%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감소율이 작아진다. 과거에는 식료품과 의류 소비가 소비자의 주요한 소비 품목이었지만 현재는 식료품, 의류 및 신발의 소비 비중이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교육, 교양오락 등 다른 품목과 함께 비교적 고르게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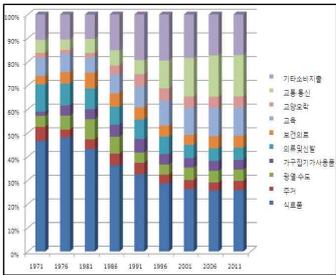


Figure 3. 가계 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비

Figure 4 는 연도별 의류소비지출을 총소비지출로 나눈 값으로 1970년부터 2011년까지 값을 회귀분석하여 회귀식을 구한 것이다. 의류소비지출/총소비지출은 1979년의 급격한 증가와 1989년의 급격한 감소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회귀식을 통해 미래의 의류소비지출/총소비지출 값을 예측해 보면 점차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들어 앞으로 정체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4. 의류소비지출/총소비지출

(2)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

Figure 5 는 총소비지출, 식료품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이 총소비지출, 식료품소비지출의 변동성보다 큼을 짐작할 수 있는데 1989년 의류소비지출의 감소율은 식료품소비지출의 감소율보다 2배 정도 크며 2010년 의류소비지출의 증가율은 식료품보다 1.6배 크게 나타났다.



Figure 5. 총소비지출, 식료품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

의류소비지출과 경기변동: 1970년부터 2011년까지 30

Table 5는 총소비지출, 식료품 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항목의 변동성은 9.2, 8.68, 12.36으로 식료품소비지출의 변동성은 총소비지출에 비해 0.94배 작으며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은 총소비지출에 비해 1.3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의 필수품인 식료품은 그 변동 정도가 적어 가장 안정적인 소비지출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류는 평균적인 변동성보다 커 경기에 따라 소비지출의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변동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0년 전후로 Table준편차를 구해본 결과 2000년 이전 Table준편차는 전체기간의 Table준편차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 12년간 Table준편차는 전체기간 Table준편차보다 2-3배 이상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은 총소비지출과 식료품소비지출의 변동성 보다 약 1.3배 크며 2000년 이후는 그 변동성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총소비지출, 식료품소비지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

	1970-2011년 표준편차	총소비지출 변동성	2000년 이전 표준편차	2000년 이후 표준편차
총소비지출	09.20		09.19	2.15
식료품소비지출	08.68	0.94	08.82	2.71
의류소비지출	12.36	1.34	13.58	4.25

2.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추이와 소득탄력성

(1) 의류소비지출의 비목별 구성비 변화 추이와 특성

Figure 6 은 2003년 1/4분기부터 2011년 1/4분기까지 소비지출의 각 비목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비목에서 전반적인 증감의 추이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기별로 일정한 증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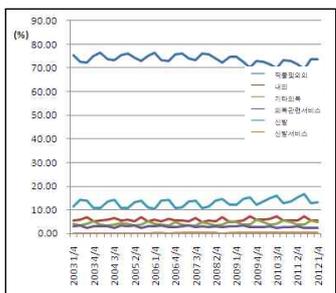


Figure 6. 의류소비지출의 각 비목별 구성비 변화

Table 6 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비목의 분기별 평균을 구성비를 계산한 것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직물 및 의의, 내의, 기타의복, 신발로 나타났다. 직물 및 의의는 1사분기에 가장 높고 3사분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겨울에 의의를 소비하는 것과 같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내의는 3사분기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6월에서 9월까지 내의의 수요가 비교적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복은 1사분기와 4사분기의 구성비가 높았고 3사분기와 4사분기의 구성비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스타킹, 목도리, 장갑 등의 품목을 겨울에 많이 착용하는 것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신발은 2사분기와 3사분기가 대체로 높고 1사분기와 4사분기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겨울보다 여름에 신발 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름철의 의류 단가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신발 지출비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6. 의류 비목별 구성비의 분기별 평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직물 및 의의	75.04	73.10	71.87	74.28
내의	65.65	65.55	66.94	65.37
기타의복	64.30	63.65	63.78	65.25
의류관리서비스	63.02	63.37	62.84	62.91
신발	11.84	14.18	14.78	11.74
신발서비스	00.15	00.15	00.14	00.15

(2) 의류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Table 7은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 변화했을 때 품목별 수요량이 몇% 변화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소득탄력성이 1이상으로 나타난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교육, 기타상품/서비스로 이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신발은 1.25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1% 증가하면 의류/신발 지출이 1.255%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 기타상품/서비스에 이어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속한다.

Table 7. 가계소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품목	소득탄력성	품목	소득탄력성
식료품/비주류음료	1.210	교육	1.460
주류/담배	0.216	통신	0.546
의류/신발	1.255	오락/문화	0.338
주거/수도/에너지	0.950	교육	-1.2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762	음식/숙박	0.501
보건	0.484	기타상품/서비스	1.288

Table 8 은 의류의 각 비목별 소득탄력성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탄력성이 1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직물 및 의의, 기타의복,

신발인데 이들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1.28, 0.97, 1.6으로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신발관련서비스와 내의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2, 0.8, 0.7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관련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소득이 변동하여도 그 지출이 많이 변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의류 비목별 소득탄력성

분류	소득탄력성	종류	소득탄력성
의복관련의	1.28	의복관련서비스	0.33
내의	0.70	신발	1.68
기타의류	0.92	신발서비스	0.815

3. 소비자 특성별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특성과 변동성

(1) 성별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과 변동성
Figure 7 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별 남자와 여자의 의류소비지출전망을 나타낸 것으로 남자 평균은 99, 여자 평균은 94로 두 수치 모두 100대 낮아 의류소비지출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기간 내의 수치 중 2008년 11월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의 의류소비지출전망 지수가 남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으로 여자의 의류소비에 대한 전망이 남자보다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지수와 의류소비지출전망을 비교해보면, 경기지수가 2008년 12월에 다소 떨어지다 2009년 3월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2년 3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남녀 의류소비지출전망 또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후 불



Figure 7. 경기지수와 남녀 의류소비지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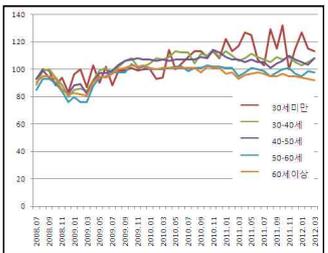


Figure 8. 연령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

V. 결론

본 연구는 경제자료를 가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변화를 보고 경기변동현상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의류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특성은 어떠한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제 자료는 모두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항목개편이 이루어져 수치가 변한 자료는 개편 이후부터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의류소비지출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의류소비지출은 1989년 불황기에 다른 품목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에는 감소폭이 큰 해가 보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산출된 회귀식으로 1인당 의류소비지출을 예측한 결과 올해는 작년 대비 약 0.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간 1.31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GDP와 1인당 총소비지출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느릴 것으로 추정된다.

의류소비지출 구성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띄었으며 현재 감소하는 속도가 줄면서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분석한 회귀식을 통해 미래의 의류소비지출 구성비를 예측한 결과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소비지출의 변동 정도는 총소비지출의 변동 정도보다 커서 총소비지출이 1만큼 변동할 때 의류소비지출은 1.34배 정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 이전과 이후의 변동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00년 이후는 그 변동성이 2-3배 정도 작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의류소비지출의 각 비목별 구성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지만 분기별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규칙적인 변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지수 그래프와 비슷한 모습을 것으로 보아 남녀 의류소비지출 전망이 경기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9 는 경기지수의 변동값과 남자, 여자 의류소비지출전망의 변동값의 표준편차를 구한 것으로 남자 의류소비지출전망(2.55)과 여자 의류소비지출전망(3.46) 모두 경기변동(0.17)보다 3-4배 크며 특히 여자의 의류소비지출전망 변동성은 남자보다 1.36배 큰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의류소비지출의 변동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변동성: 남녀 비교

	표준편차	경기변동성과의 비율
경기변동	0.17	
남자 의류소비지출전망	2.55	3.55
여자 의류소비지출전망	3.46	4.82

(2) 연령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과 변동성

Figure 8 은 연령을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의류소비지출전망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 그래프를 보면 30대와 40대, 50대와 60세 이상이 각각 비슷한 모습을 보여 연령별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을 30세 미만, 30-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의류소비지출전망 평균이 100으로 의류소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월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경기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 경기변동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0세 이상부터는 경기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경기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0-40대 의류소비지출전망 평균은 103으로 100이상의 수치이므로 의류소비지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50대 이상 의류소비지출전망 평균은 96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0대 미만의 경기변동의 흐름을 따르지 않지만 의류소비지출이 가장 활발한 연령으로 볼 수 있으며 30-40대의 의류소비는 경기변동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연령에 비해 의류소비지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류소비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0. 연령별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변동성

	표준편차	경기변동성과의 비율
30세 미만	11.57	16.11
30대	0.401	0.558
40대	0.327	0.500
50대	0.345	0.480
60세 이상	0.281	0.391

의류소비지출과 경기변동: 1970부터 2011년까지 32

소비자의 의류 비목별 지출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비교해보면 의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았으며 특히 적물 및 의의, 신발이 각각 1.28, 1.60으로 소득이 변함에 따라 그 지출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의류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낮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변동성 또한 남자보다 1.36배 크다. 소비자의 연령별 의류소비지출전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미만은 변동성이 가장 크며 경기의 전반적 흐름을 따르지 않지만 의류소비지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30-40대는 경기변동의 전반적인 흐름은 따르면서 의류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50대 이상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류소비 활동에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의류소비지출전망의 변동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변동성이 작아진다.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시작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한 의류소비지출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품목과 비교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의류소비지출의 특성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류 관련 생산업자나 유통업자, 마케터들에게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밀착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과 변동성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행 소비자에 따른 마케팅 전략 확립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99년 지해경, 이은영의 경기변동에 대한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지출행동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의류소비지출을 비교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으며 그 동안 다소 추종했던 의류분야의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1970년에서 2011년 혹은 2003년에서 2012년 등 다소 일정하지 않아 연구의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경기의 순환 주기에 따라 경기호황기 혹은 불황기의 의류소비지출의 특성을 살펴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관된 분석기간과 불규칙적인 재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순환주기별 소비자의 의류소비지출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 이은영. (1997). *패션마케팅*(제2권). 서울: 교문사
- 지혜경, 이은영. (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의류소비지출 특성. *한국유통학회지*, 88, 745-756.
- 정수진. (1996). *우리나라 소비자의 의복비 지출구조 변화
양상과 그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광원. (2011). 가계 식료품 소비지출의 비교연구.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4, 71-93.
- Kim, Seo-Jung. (2011). *Apparel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U.S. Expressed through the Analysis of Business
Fluctuations: 1995-2008*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국내통계. 통계청. 자료검색일 2012. 6. 20. 자료출처
<http://kostat.go.kr>